

교양교육원은 2021년 하반기 '공통교양 <글쓰기> 보고서 및 에세이 공모전'을 시행하고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폭발적 관심 속에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서 교양교육원은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숙고한 끝에 수상작을 확정하였습니다.

2차, 3차 심사평을 정리하여 게시합니다. <글쓰기> 수강생 및 글쓰기에 관심 있는 고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일반 부문 심사평입니다.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보고서는 대체로 기존 자료나 논의를 정리하는 데 머물렀다는 평입니다.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무엇보다도 진정성 있는 자신만의 문제의식이 중요합니다. 이번 응모작 중에는 주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깊이와 독창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론을 통해 주제를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방법론 선정뿐만 아니라 자료 선정과 분석, 활용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세이 응모작의 경우 전반적으로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담아낸 편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이러한 글이 개인적 차원의 감정 토로에 그치지 않으려면 개인의 경험을 진실성 있게 담아내면서도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성찰하고 형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면 진지한 사유를 담은 진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독자와 소통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의 표현은 독자에게 전달되고 공감을 이끌어낼 때 비로소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입니다. 주제를 드러내는 데 알맞은 구성과 표현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특별상 부문 심사평입니다.

보고서 응모작은 이전 공모전 출품작에 비해 주제가 좀 더 구체적이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잘 드러나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주제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선정한 주제가 왜 논의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충되어야 주제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에세이 부문에 많은 응모작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글로 잘 표현한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독자의 공감을 좀 더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2차 심사 대상작 모두 글의 마무리가 미흡하였는데, 해당 경험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좋은 마무리가 있는 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보고서 부문 총장상과 교무부총장상, 에세이 부문 교양교육원장상 중 한편은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작품이 없어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글쓰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공모전이 어느덧 다섯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글쓰기> 교육 내용의 개편에 따라 공모전 또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할 <글쓰기> 공모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